

## 28회 법무사시험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총평

담당 : 법무사 최재용

### 1. 출제 경향

2022년 28회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문제는 대법원 주관 시험의 난이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최근 경향에 맞게 상향 평준화된 통상 수준의 지문 수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등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등기법의 비중이 늘어나고 비송사건절차법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었던 예년과 달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어 수험생분들이 예상하고 준비하던 출제 방향과 어긋남으로써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상 출제되고 있지 않았던 인적회사(합명회사)의 등기문제가 단독문제로 출제되었으나 정답은 합명회사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수험생분들을 크게 당황시키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이는 법무사 실무영역에서 매우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업등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출제 비중을 늘려오면서 잃어버린 비송사건절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 출제전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빈도와 비중과 상관없이 법무사라면 일응 전반적인 법률영역의 최소한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자부심으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출제경향 분석 -

| 구분      |      | 계 |
|---------|------|---|
| 상업등기법   | 총론   | 3 |
|         | 주식회사 | 4 |
|         | 그 외  | 2 |
| 비송사건절차법 | 총론   | 1 |
|         | 상사비송 | 3 |
|         | 민사비송 | 1 |
|         | 과태료  | 1 |

## 2. 29회 수험 전략

2021년 27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60.76%로 과락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유독 타과목보다 제3과목이 과락률이 높은 이유는 민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민사집행법이라는 어려운 절차법에 대한 수험강도와 출제 문항 수(15개)가 적은데 비해 그 전체적인 범위가 매우 넓은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한 경제적인 수험 전략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위한 평균점수가 60점대 내외인 법무사시험의 경우, 민법, 상법 등 비중이 큰 실체법을 중점으로 공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위해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목들을 버리는 전략은 절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특정 과목의 고득점을 노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보다는 각 과목의 총론 및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을 맞춤으로써 기본 점수를 지키는 것이 과락을 면하고 합격점수에 이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8회 시험에서도 보여지듯 상업등기법에서도 특히 주식회사에 관한 등기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준비하면서도 상업등기 및 비송사건의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이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실무적인 내용만을 학습하기 보다는 상법 등 실체법의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부하여 이해하고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단독문제로 출제되고 있는 비송사건(과태료사건)은 적은 공부량으로도 전략적으로 점수를 지킬 수 있는 수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이 매우 넓은 범위와 다양한 사건들을 출제범위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업등기에서도 주식회사의 등기, 비송사건에서도 상사비송 즉, 실무 빈도가 높은 부분을 중점으로 공부를 하고 지나치게 지엽적이고 출제빈도가 낮은 사건들을 과감하게 구분하여 공부를 한다면 결론적으로 적은 분량으로 충분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